

10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94.59	↓ 코스닥	788.60
	(-24.50)		(-20.62)
↓ 금리 (미국 9년)	3.703	↑ 환율 (원/달러)	1324.20
	(-0.155)		(+2.00)

## 韓美日 협력 급물살... ‘시진핑 체제’ 中 경제고립 위기



한일 경제계 인사 협력 논의 16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尹, 10대 그룹 총수들과 동행 ‘韓日동맹’ 美, 中 압박 무게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 시진핑에 다시 한번 주석을 맡기면서 앞으로 경제 고립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한국이 함께 하고 있어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한일 경제계 핵심 관계자들은 오는 16일 일본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4면〉

이 행사는 한일 양국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2008년 열렸던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 이후 공식적으로는 처음이다.

한일 양국은 이번 기회로 경제적 협력을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까지 갈등 요인이었던 ‘강제 징용’ 관련해 합의에 성공한 상황, 2019년 수출 규제 등 경제적 분쟁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국도 적극적으로 환영 뜻을 나타냈다. ‘강제 징용’ 문제 합의 직후 환영 인사를 발표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미국 기업 처음으로 배상금 기부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재계에서는 이번 한일 협의로 미국의 중국 압박이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동맹 관계인 한국과 일본이 오랜만에 힘을 합치게 되면서 중국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

실제로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위해 미국을 대신해 일본 기업들을 물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니콘이 개발한 DUV와 캐논이 개발한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NIL) 등 장비를 활용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 일본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새로운 시장으로 낙점했지만, 한국과 협력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썬) LG 대표

등 10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동행하기로 알려졌다. 한일 경제 협력 정상화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12년간 중단된 서틀 외교(상대국을 오가며 정례 정상회담을 여는 것)가 복원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커졌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점을 고려 일각의 비판을 무릅쓰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한미일 협력과 이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건 만큼 한국에 불리한 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법안에서 미국에 요구할 여지가 커졌다.

〈4면에 계속〉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社告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2일(수)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잇따른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재테크 전략도 다시 짜야 합니다.

메트로신문은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은퇴 준비 재테크와 부동산 세테크 전략을 모색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김영의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거시경제 전망과 ‘증시업탐정’, ‘엄블리’로 유명한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가 주식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호지영 세무사(우리은행)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테크 전략, 김동업 미래에셋상무의 은퇴 준비와 재테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행사명 : 2023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주 제 :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 일 시 : 3월 22일(수) 14:00~17:10(VIP 티타임 13:40~14:00)
- 장 소 :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방 식 : 선착순 현장참가 신청
- 문의 및 참가 신청 :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metro**

## ‘흑자 굳히기’ 나선 쿠팡, 日 사업 접고 대만 투자 집중

도쿄 배송 서비스 21일 종료 엔데믹 여파 성장 둔화 영향 수익성 높은 크로스보더 강화

쿠팡이 수익성 개선을 위한 질서 정리를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시장에서 철수하고, 리테일 테크 영역과 크로스보더(직구·역직구) 역량 성장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쿠팡이 도쿄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식품 및 생활용품 배송 서비스를 이달 21일 종료한다고 보도했다. 쿠팡재팬은 니혼게이자이에 “시험적으로 서비스를 운용한 결과, 철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쿠팡 대구 풀필먼트 센터에 도입한 무인 지게차의 모습. 직원이 누르는 버튼 한 번으로 알아서 대용량 제품을 옮겨줘 직원의 안전도 보장한다. /쿠팡

쿠팡은 지난해 “흑자 전환을 위해 본격적인 수익성 강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후 각종 프로모션 비용을 줄이는 등 수익성 개선 사업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일본 내 쿠팡 사업 철수 또한 이런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쿠팡은 지난 2021년 6월 일본 도쿄 일부지역에서 로켓배송과 쿠팡이츠를 결합한 퀵커머스 형태로 시범 사업 운영에 들어갔다. 글로벌 시장분석 기업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일본내에서 퀵

커머스 산업군 전체의 총매출은 2019년 11억1000만 달러에서 2020년 17억1000만 달러, 2021년 23억6000만 달러까지 치솟았으나 본격적인 엔데믹(풍토화)를 맞은 지난해 26억6000만 달러로 시장 증가세가 둔화했다.

스태티스타는 “2023년 매출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5.1%까지 오르겠지만 이후 증가세는 계속 둔화 돼 2027년에는 11.4%로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반면 수익성이 좋은 대만 시장에 대한 투자와 미래 유통 산업의 육성은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년간 쿠팡이 지출한 물류 기술 투자 규모는 1조2500억

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리테일 테크를 육성하면 솔루션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차 물류 캐파(CAPA)를 개선해 더욱 큰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며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은 물류 외에도 적용 가능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지난달 아시아권 최대 규모 물류센터인 대구FC를 공개하고, 무인운반로봇(AGV), 소팅봇 등 최첨단 기술을 선보였다. 여기에 투자된 금액은 3200억원 수준으로, 이후에도 추가적인 투자가 계속 될 예정이다. 올해 중 추가로 2개의 대형 물류 센터를 열 예정이다.

크로스보더(직구·역직구) 커머스도 계속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대만에 역직구 플랫폼 사업에 진출했다. 앞서 국내 로켓직구 서비스에도 중국과 홍콩 등을 추가하며 중국 내 크로스보더 커머스 역량을 키우고 있다. 매년 한류 문화에 관심이 높아지며 해외 고객의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자동번역, 배송역량 성장으로 간편해진 직구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투자는 초기 매출 비용이 커도 일정 규모에 오르면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며 수익성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1133억원을 기록하며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 /김서현기자 seoh@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국민의힘, ‘측근 사망’ 이재명에게 “정치 이전 인간 돼야” /사진 뉴시스  
▲ 김일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사퇴... 참모들에 “건승하시라”

▲ 태영호 “JM’S 민주”... 與, ‘前비서실장 사망’ 이재명 맹공세  
▲ 선거제 개편 시한 한달 앞으로... 여야, 이번주 당내 의견 수렴



▲ 민주 “日 총리 초청장 한장에 국민자존심 팔아”...尹강제징용해법 직격 /사진 뉴시스  
▲ 한미, 내일부터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실시